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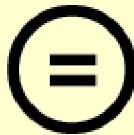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국어국문학과

AUNG NAY HEI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지도교수 김 희 섭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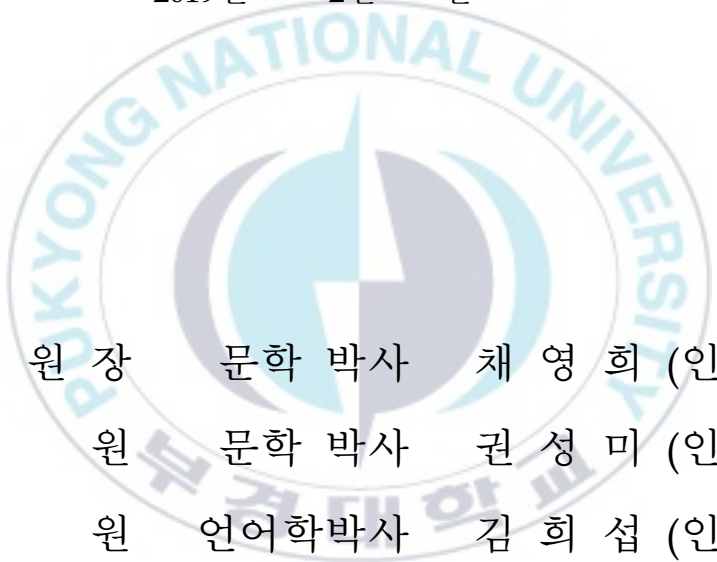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어국문학과

AUNG NAY HEIN

AUNG NAY HEI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일



위 원 장 문학 박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학 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목 차

*목차	i
*<표 차례>	iii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2
3. 연구 방법	4
II. 한. 미 호칭어의 개관	5
1. 한. 미 호칭어의 개념	5
2. 한. 미 호칭어의 유형	7
III. 한. 미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비교	10
1. 한. 미 친족 호칭어의 형태	10
2. 한. 미 사회 호칭어의 형태	14
3. 한. 미 호칭어의 형태 비교 분석	15
IV. 한. 미 호칭어의 유형별 비교	17
1. 친족 호칭어	17
1.1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 유형	17
1.2 미얀마어의 친족 호칭어 유형	18

1.3 한. 미 친족 호칭어에 대한 비교	19
2. 사회적 호칭어	29
2.1 한국어의 사회적 호칭어 향상	29
2.2 미얀마어의 사회적 호칭어 향상	35
2.3 한. 미 사회적 호칭어에 대한 비교	40
3. 한. 미 사회적 호칭어 사용에 대한 비교	45
3.1 경정 요인	45
3.2 한. 미 상황적 요인에 맥락별 따른 차이	49
3.3 한. 미 호칭어의 특징	56

V. 결론	57
참고문헌	60
국문초록	64



<표 차례>

<표 1>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개념	5
<표 2> 미얀마어 호칭어에 대한 개념	6
<표 3> 한국어 호칭어 유형	8
<표 4> 미얀마어 호칭어 유형	9
<표 5> 한. 미 친족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	10
<표 6> 한. 미 형제자매 배우자 지칭 호칭어의 형태	11
<표 7> 한. 미 친숙질 지칭 호칭어의 형태	12
<표 8> 한. 미 외숙질 지칭 호칭어의 형태	13
<표 9> 한. 미 통칭형 호칭어의 형태 비교	14
<표 10> 한. 미 친족 호칭어의 형태 비교	15
<표 11> 한. 미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 비교	16
<표 12> 한. 미 부부간의 호칭어 시기별 비교	19
<표 13> 한. 미 자식의 부모 호칭어	21
<표 14> 한. 미 부모가 시기별 호칭어	22
<표 15> 한. 미 형제자매 지칭 호칭어 비교	23
<표 16> 한. 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호칭어 대조	24
<표 17> 한. 미 친숙질 지칭 호칭어 대조	25
<표 18> 한. 미 외숙질 지칭 호칭어 대조	25
<표 19> 한. 미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	27
<표 20> 한. 미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	28
<표 21> 한국어의 직함/직업 호칭어 유형	29
<표 22> 미얀마어의 직함/직업 호칭어 유형	35
<표 23> 한국과 미얀마의 직함/직업 호칭어 차이	40
<표 24> 한. 미 통칭형 호칭어 대조	43
<표 25> 한. 미 대체형 호칭어 대조	44
<표 26> 호칭어 사용 관계 용인	46

<표 27> 한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어	49
<표 28> 미얀마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어	51
<표 29> 한국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52
<표 30> 미얀마 작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53
<표 31> 한국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54
<표 32> 미얀마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55



A Study on comparing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Myanmar

AUNG NAY HE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study on comparing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Myanma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present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proposed the purpose and discussed the trends of existing literature and specifically addressed th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The second chapter explained what is the appellation and classified terms of address in three types. The three types of appellation terms such as appellation terms of relatives, of names and society.

The third chapter comparing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Myanmar with appellation terms of relatives and society. Appellation terms of type classification in Korean and Myanmar.

The fourth chapter a morphological contrastive study of nouns with kinetic nomenclature, social nomenclature in Korean and Myanmar.

The fifth chapter summarized from the chapter first until the fourth conclusion is the last part of this chapter. I hope this study helps contribute to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Myanmar.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를 대조하여 언어적 상황에 따른 사용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한국어 학습자와 미얀마어 학습자들이 언어습득을 쉽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미얀마는 1975년에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현대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 양국의 협력관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어를 학습하고자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음악,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와 어학원도 늘고 있다.

외국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언어 예절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언어 예절은 특히 호칭으로 대변된다. 호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며 의사소통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호칭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대화 흐름까지 일정 부분 좌우된다고 한다. 호칭어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학습 항목 중 하나이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형태가 다르므로 적절한 호칭어 사용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생활에서 적당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적당한 호칭어를 적합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호칭어를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호칭어에 대하여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미얀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학습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 호칭어에 관한 최근의 연구 및 논의는 호칭어를 중심된 대상으로 (이익섭 (1994), 박정운 (2005))에는 호칭어는 높임법의 하위개념으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도 있다. 높임법이란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대화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이다. 경어법의 실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표면적인 관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감 등의 내적 관계도 나타난다.

유송영(2002)는 ‘화자-청자 관계’라는 측면으로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청자에게 동일한 담화 안에서 호칭·지칭어와 2인칭 대명사를 함께 사용한 예를 분석하였고, ‘화자-청자’의 관계가 고려된다면 국어에는 호칭·지칭어와 2인칭 대명사의 다양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 동일한 화자와 청자는 언제나 하나의 관계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그때 화자와 청자의 관계 변화는 호칭·지칭어와 2인칭 대명사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왕한석(2005)에서는 호칭어 연구의 주요 이론을 소개하고 이론들이 가지는 특성과 이론적인 지향과 더불어 하나의 틀을 보여줌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호칭어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호칭어의 사용이 사회적인 관계를 반영하기도 하고 화자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체계적인 호칭어의 연구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반적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의사소통이 민족지학의 이론적 틀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실제적인 호칭어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의 시각이 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어 호칭어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해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연구의 시작이다.

한국어의 교육적 입장에서의 호칭어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이선화, (2002)) 길 묻기, 물건 사기 등의 특정한 공공 상황에서의 호칭의 특징과 한국어 교육적 적용을 시도한 연구다. 또한 (한윤정, (2003)) ‘아줌마.아가씨.언니’ 등의 친 족칭의 일부가 사회 호칭으로 보편화, 토착화된 현상을 실증적으로 다룬 논의, (이연경, (200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청자 대우 양상과 호칭 현황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한국어의 특성상 호칭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살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호칭어의 의미와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실제 언어생활에 영향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호칭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남아 있었다.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강병주 (2011))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Kim Lan Hua (2013))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김은경 (2016))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얀마 두 나라의 호칭어에 대한 전체적인 대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를 대조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형별 호칭어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호칭어의 특징이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수집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대조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호칭어의 개념에 대한 한국과 미얀마 양국어의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호칭어의 개념을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미얀마를 대조하는 관점에서 호칭어의 유형을 분류한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어 호칭어와 미얀마 호칭어를 형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의 유형별 특징들을 기술하고 대조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앞장의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II. 한·미 호칭어의 개관

2.1. 한-미 호칭어의 개념

2.1.1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

호칭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그 표현이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는 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다. 박갑수(1989)와 정재도(1989)에서 호칭어를 ‘부름말’이라 하였다. 김혜숙(1991)은 호칭어는 화자가 그 상대자의 앞에서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부름말’로 정의하였고, 이무영(1994)에서는 호칭은 특정의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명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익섭(2000)에서는 호칭은 상대방의 면전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시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지칭은 제 3 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이선화(2002)에서도 호칭어를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 정의하였다. 왕한석(2005)에서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을 호칭어라고 하였다. 양영희(2006)에서는 호칭어는 상대를 부르는 개념이고 지칭어는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들을 호칭어로 통칭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호칭’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개념

연구자	정의
박갑수(1989)	칭호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고 지칭은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무영(1994)	호칭은 특정의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명칭이다. (호칭어, 지칭어 포함).
이익섭(2000)	호칭은 상대방을 그 면전에서 직접 지시 형식이며 호출어와 구분한다. 지칭은 제3자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이선화(2002)	호칭은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 하였다.
왕한석(2005)	호칭어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표현들’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양영희(2006)	호칭어는 상대를 부르는 개념이고 지칭어는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들을 호칭어로 통칭한다.

<표 1>을 바탕으로 호칭어에 대한 정의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라고 정리한다.

2.1.2 미얀마어 호칭어의 개념

미얀마에서는 '호칭어'에 관한 용어로 'arlote sakar'가 있다. 미얀마 교육부에 의해 출판된 미얀마어 사전 (vol.5_pg157)에서 '호칭'이란 대면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aung Khin Min (2007)에서는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 사회적인 직위, 친숙 관계, 성별, 화자가 청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까지 반영하는 명칭이라고 정의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도 '호칭'이란 대면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어에는 '지칭어'라는 항목은 없고 그것에 해당되는 1인칭(자신을 가리키는 말), 2인칭(내가 상대를 상대가 나를 가리키는 말), 3인칭(제 3자)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호칭어'에 해당하는 개념은 'Arlote Sakar'이며 한국어의 지칭어의 해당하는 개념은 '인칭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표 2> 미얀마어 호칭어의 대한 개념

연구자	정의
Daw Mar Lay (1977)	미얀마 호칭어 체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용 양상을 언어학적 음운론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현대 미얀마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를 한 눈에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Daw Mi Mi Khaing(1958)	미얀마 호칭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 형상과 경어법에 따른 호칭어 사용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제시하고 미얀마 이름에 미치는 영향까지 밝혔다.
KYAW YE`HTET(2010)	현대 미얀마에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들은 사회언어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2>를 바탕으로 미얀마어 호칭어의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소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2. 한-미 호칭어의 유형

2.2.1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구성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들의 대표적인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박갑수(1989)에는 감탄사형, 성명-접사형, 신분명형, 친족어 대용형, 성명(-조사)형, 명사형, 외래어형, 등으로 정리하였고, 이익섭(1994)는 대명사 호칭, 성명과 직함, 친족 호칭으로 정리하였다. 박선민(1995)는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교분이 있는 경우의 담화에 쓰이는 호칭어,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 교분이 없는 경우의 담화에 쓰이는 호칭어(성명+접사, 신분명형, 성명(+조사)형, 친족명형, 택호형, 외래어형)로 정리하였다. 이선화(2002)에서는 간접 호칭(친족어형, 명사형, 직함형), 직접 호칭(주의끝기형, 처소지칭형, 생략형)과 한윤정(2003)에는 성명+접사, 성명(+조사), (성+)직함명, 친족 호칭어, 대명사, 택호, 외래어, 여기요, 통칭적 호칭어(친족어 호칭어의 통칭형, 직함 호칭어 통칭형), 기타 (별명 호칭어, 호를 통한 호칭어)로 정리하였고, 박정운(2005)에서는 이름 호칭어 유형, 직함 호칭어 유형, 친족어 호칭어 유형, 대명사 호칭어유형, 통칭적 호칭어 유형, 기타 호칭어 유형(별명 호칭어, 호를 통한 호칭어, 지역명을 이용 호칭어, '여보세요'류 유형), 영형 호칭어, 친근 호칭형으로 정리하였다. 또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호칭어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¹⁾

<표 3> 한국어 호칭어 유형

유형	예
친족 호칭어	친족 호칭은 ‘아버지, 형, 언니, 누나, 어머니, 아줌마, 아저씨, 삼촌’ 등과 같은 표현으로 실제 가족(친척)간에 사용되는 경우와 가족(친척)호칭이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름 호칭어	이름 호칭은 상대의 성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로 ‘-씨, -님, -군, -양’ 등의 접미사와 호격조사 ‘~아/야’와의 결합된 형태로 불린다.
사회 호칭어	사회 호칭이란 청자의 실제 이름보다는 사회적, 혈연적 관계 등에서 얻은 ‘위치, 자격’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 부르는 것이다.
대명사 호칭어	대명사 호칭이란 이름 대신 상대를 부를 때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 당신, 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낮선 관계 호칭어	낮선 관계 호칭이란 대화자간에 마땅한 호칭이 없는 경우나 호칭은 있지만 아직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어려운 경우에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호칭을 말한다. ‘저기요, 여기요’ 등이 그 예이다.

호칭어의 대표적인 기능은 어떤 사람이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호칭어가 갖는 기능을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박정운(2005/75면, 한국어 호칭어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호칭어는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기능을 한다. 이때의 청자는 화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도 있고 전혀 낯선 관계일 수도 있다. 한편, 화자와 청자가 실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쓰일 뿐 아니라 가령, 길을 묻는 상황에서처럼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도 사용된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표면적인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어떤 호칭어가 사용되는가를 통해 대화자간의 연령, 서열, 직위 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1) 이윤진(2006),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292/293면 참조.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친근감의 정도,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같은 상황의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대화자간의 친근감,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호칭표현이 다양하다. 호칭어의 선택은 대화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특정 호칭어의 선택은 대화자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고 소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호칭의 사용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호칭어는 같은 대화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즉,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기능이 있다.

2.2 미얀마어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 호칭어는 친족어, 이름호칭어, 사회호칭어, 대명사호칭어, 낯선 관계 호칭어 등 5 가지 항목이 있다면 미얀마 호칭어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미얀마어에는 친족호칭어, 이름호칭어, 사회호칭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적 한국어보다 미얀마어의 호칭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를 형태론적, 친족과 사회적 호칭어를 중심으로 대조하고자 한다. 다음은 <표 4> 미얀마어 호칭어 유형 표이다.

<표 4> 미얀마어 호칭어 유형

유형	예
친족 호칭어	친족 호칭은 apay/အဖ(아버지), amay/အမ(어머니), aabhe/အဘိုး(할아버지), aphwarr/အဖ(할머니), aaitko/အဝ်(형/오빠), aaitm/အမ(언니/누나), 등이 있다.
이름 호칭어	이름 호칭은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사회 호칭어	사회 호칭이란 청자의 실제 이름보다는 사회적, 혈연적 관계 등에서 얻은 '위치, 자격'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 부르는 것이다.

III. 한 . 미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비교

3.1 한. 미 친족 호칭어의 형태

친족호칭어는 친족 간에 서로 상대를 직접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과 미얀마 친족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 <표 5>의 표이다.

<표 5> 한. 미 친족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

한국어	미얀마어
아버지 [abeoji]	ဖခင် [hpahkain]
어머니 [eomeoni]	မိခင် [mihkain]
할아버지 [hal_abeoji]	အဘိုး [aabhoe]
할머니 [hameoni]	အဘွား [aphwarr]
형 [hyeong]	အစ်ကို [aaitko]
오빠 [oppa]	အစ်ကို [aaitko]
누나 [nuna]	အစ်မ [aaitm]
언니 [eonni]	အစ်မ [aaitm]
남동생 [namdongsaeng]	ညီမသူ [nyepyitsuu]
여동생 [yeodongsaeng]	ညီမ [nyem]

한국의 친족 호칭어에는 형태적 규칙을 찾을 수 없지만 미얀마 친족 호칭어에는 대부분이 [a]로 시작하는 형태적 규칙이 있다.

<표 6>에서는 한. 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형태론적인 대조한 것이다.

<표 6> 한. 미 형제자매 배우자 지칭 호칭어의 형태

관계	한국	미얀마
형의 아내	형수 [hyeongsunim]	ယမာ [hkaalm]
언니의 남편	형부 [hyeongbu]	ခန့် [kheo]
오빠의 아내	새언니 [saeeonni]	ယောဇ်မ [yountm]
남동생의 아내	제수 [jesussi]	
누나의 남편	매부/매형 [maebu,maehyeong]	ယောကဖ [youkph]
여동생의 남편	서방 [seobang]	

한국과 미얀마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의 차이점은, 먼저 오빠의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는 서로 다른 호칭어인 ‘새언니’와 ‘제수’를 사용하는데 비해 미얀마에서 오빠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yountm’로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할 때도 한국에서는 ‘매부, 매형’과 ‘서방’으로 부르는데 미얀마에서는 ‘yountph’로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그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은 한국어에는 형의 아내 ‘형수[hyeongsunim]’, 언니의 남편 ‘형부[hyeongbu]’를 같은 형태 ‘[hyeong]’으로 발음을 시작한다. 미얀마에서는 오빠의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를 같은 호칭‘[yountm]’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는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youkph]’로 같은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

한. 미 친숙질에 관한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 <표 7> 와 한. 미 외숙질에 대한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 <표 7>의 표이다.

<표 7> 한. 미 친숙질 지칭 호칭어의 형태

관계	한국	미얀마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큰아빠 [keun_abeoji, keun_appa]	ဘဏ္ဍာ [bhakyee]
아버지의 남동생	삼촌 [samcho]/ 아저씨 [ajeossi](미혼인 경우), 작은 아버지(기혼인 경우)	ဦးလွှဲ [ulyay]
아버지의 형의 아내	큰어머니, 큰엄마 [keun_eomeoni, keun_eomma]	အသ် [adaw]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	작은 어머니, 숙모 [jag_euneomeoni, sugmo]	
아버지의 누이/여동생	고모 [gomo]	
아버지의 누이/여동생의 남편	고모부 [gomobu]	ဘဏ္ဍာ [bhakyee], ဦးလွှဲ [ulyay]

한국에서는 친숙질 지칭 호칭어 사용이 형태가 구분이 잘 되어 있다는 반면에 미얀마에서는 아버지의 형의 아내,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 아버지의 누나/여동생을 ‘[adaw]’라고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표 8> 한. 미 외숙질 지칭 호칭어의 형태

관계	한국	미얀마
어머니의 남자형제	외삼촌, 아저씨, 외숙부 [oesamchon, ajeossi, oesugbu]	ဘဏ္ဍာ [bhakyee], ဦးလွှဲ [ulayy]
어머니의 여자형제의 배우자	이모부, 아저씨 [imobu, ajeossi]	
어머니의 여자형제	이모, 아주머니 [imo, ajumeoni]	အသ် [adaw]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배우자	외숙모, 아주머니 [oesugmo, ajumeoni]	

한국에서는 친숙질과 외숙질 관계에서 형태론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반면에 미얀마에서는 같은 형태로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부계 모계 관계에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의 친족호칭체계는 세분화되어 있다. 미얀마의 친족호칭은 그에 비해 단순한 호칭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3.2 한. 미 사회 호칭어의 형태

사회 호칭어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호칭으로 상대방의 직업, 연령 간의 관계나 의사소통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한. 미 사회 호칭어에는 신분형, 통칭형, 대체형, 생략형 호칭어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미 통칭형 호칭어를 중심으로 형태적으로 대조해보자 한다. 다음은 한. 미 통칭형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비교 <표 9>의 표이다.

<표 9> 한. 미 통칭형 호칭어의 형태 비교

국가 \ 형태	신분형 호칭어	친족형 호칭어	외관지시형 호칭어
한국	사 장 님 [sajangnim], 선생님 [seonsaengnim], 학생[hagsaeng] 등	할 머 니 [hameoni], 할아 버지[hal_abeoji] 아저씨[ajeossi],아 주머니[ajumeoni] 등	총 각 [chong_gag],아기 씨[agissi],젊은이 [jelm_eun_i], 등.....
미얀마	သုတ္တေ[suuhtayy], ဆရာ[sarar], ကျောင့်ငှက်[kyaunggsarr].....	အဖ[aphwarr], အဘိုး[aabhoe], ဦးလေး[ulayy], အဒေ[adaw]...	လူပျာ[luupyao], မိန်းကလေး[meinkalayy], လူငယ်[luungaal], ..

한. 미 양국에 [s]형태를 똑 같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에는 사장님[sajangnim], 선생님[seonsaengnim]과 미얀마어의[sarar]는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같은 형태[s] 발음으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다.

3.3 한. 미 호칭어의 형태 비교 분석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친족, 사회 호칭어의 형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미얀마어 친족 호칭어의 형태를 비교하는 <표 10>,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를 비교하는 <표 11>의 표이다.

<표 10> 한. 미 친족 호칭어의 형태 비교

형태	
한국	1. 기본형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등) 2. 기본형 + 님 (아버님, 어머님, 형님, 등) 3. 기본형 + 씨 (제수씨, 형수씨, 등) 4. 기본형의 친근 (아빠, 엄마, 등)
미얀마	1. 기본형 (apay(အဖေ), amay (အမေ), aabhoe (အဘိုး), aphwarr (အဖ), aaiko (အမိ) aaim (အမေ), 등)

위의 <표 10>을 보면 한국이 미얀마보다 친족 호칭어의 형태가 비교적 더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친족 호칭어의 형태가 4가지 있지만 미얀마어에는 기본형만 있다. 다음은 한. 미 사회적 호칭어의 비교 <표 11>의 표이다.

<표 11> 한. 미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 비교

	형태	예
한국	직함+님	교수님, 사장님, 부장님, 대표님, 등
	성+직함/성+직함+님	김교수님, 김사장님, 김부장님, 등
	성+이름+직함+님	김희섭 교수님
	성+이름+직함	김기욱 부장
미얀마	직업명+이름	DOCTOR+ NAY HEIN
	직업명+이름 존칭+이름	DIRECTOR + KO + AUNG KO LAT
	직위명+이름	POST POSITION + KHIN MAY
	직위+학명+이름 존칭+이름	HEAD OF DEPARTMENT + DOCTOR + U + AUNG NAY

한국어의 직함 호칭어에는윗사람에게 사용하는 ‘성+이름+직함+님’ 형태는미얀마어의 ‘직업명+이름 존칭+이름’과 같은 사용으로 나타낸다. 한국어 직함 호칭어에는 ‘님’이 사용되고 미얀마 직함 호칭어에는 존칭을 사용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직함/직업 호칭어의 경우 차이점도 있다. 한국어 직함/직업 호칭어의 경우에는 ‘성+이름+직함+님’, ‘성+이름+직함’ 형태에는 이름 뒤에 ‘직함+님’, ‘직함’을 붙여 사용하지만 한국어와 달리 미얀마어 직함 호칭어의 경우에는 ‘직명+이름’, ‘직명+존칭+이름’ 형태에는 이름 앞에 ‘직명’, ‘직명+존칭’을 사용한다.

IV. 한 . 미 호칭어의 유형별 비교

4.1 친족 호칭어

4.1.1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 유형

친족호칭어는 친족 간에 서로 상대를 직접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며, 또한 상대친족원이 자기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족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친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기도 한다. 친족 호칭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뉜다.

- (1) ㄱ. '기본'형
- ㄴ. '기본형+님'형
- ㄷ. 기본형+씨'형
- ㄹ. 기본형의 친근'형

(1)ㄱ. '기본형'(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형, 오빠, 숙모 등), (1)ㄴ. '기본형+님'형 (아버님, 어머님, 이모님, 형님, 숙모님 등), (1)ㄷ. '기본형+씨'형 (제수씨, 형수씨)²⁾, (1)ㄹ. '기본형의 친근'형 (아빠, 엄마 등) 있다. 높임형 (—님)은 주로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부모에게 사용한다.³⁾ 특히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가족성원에게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등 요인을 무시한 채 거의 다 높임형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부모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머님', 남편의 동생에게는 도련님, 아가씨'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박정은(1997:513면)에서는 '—씨'가 친족어에 붙는 호칭어 형태는 두 가지 뿐이며 사용 빈도도 적다.

3) 자신의 부모에게는 격식을 차려야 하거나 설면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님'을 사용하자 않은 것이 정상이다.

4.1.2 미얀마어의 친족 호칭어 유형

미얀마어는 한국어처럼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한국어의 첫 번째 ‘기본형’에 해당하는 형태만 있다. 기본형에는 apay/အဖ(아버지), amay/အမ(어머니), aabhe/အဘိုး(할아버지), aphwarr/အဖ(할머니), aaitko/အဝ်(형/오빠), aaitm/အဝ်(언니/누나), 등이 있다. 그 외에는 매개 친족형도 있다. (မေ/မေ/maymay/아빠, မေ/မေ/maymay/엄마). 그렇지만 미얀마어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친족 호칭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aba), 어머니는 (ayee)등으로 부를 수 있다.

미얀마의 부부 호칭어는 YoutKyar(남편), MainMa(아내)를 지금 까지 사용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사용할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 호칭어는 apay(아버지), amay(어머니)를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aba(아버지), ayee(어머니)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의 호칭어는 thar(아들), thamee(딸)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미얀마의 형제자매를 부를 때 호칭어는 ako(형/오빠), ama(누나/언니), nyilay/maung lay(남동생), nyimalay(여동생)을 사용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은 ‘mayee, keoe, yountm, youtph’ 등을 사용한다.

미얀마의 친숙질에 대한 호칭어는 U Gyi ,Daw Gyi ,U Lay, Daw Lay 등이 사용된다. 외숙질에 대한 호칭어의 경우에는 U Gyi, U Lay, Daw Gyi, Daw Lay 등이 있다. 미얀마어의 경우에는 친숙질에 대한 호칭과 외숙질에 대한 호칭의 사용이 같다. 미얀마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를 때 apay(아버지), amay(어머니),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는 [thamee](딸)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에는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에는 apay(아버지), amay(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처부모가 사위를 부를 때에는 thar(아들)라고 부른다.

4.1.3 한. 미 친족 호칭어에 대한 비교

아래 표는 한국과 미얀마의 부부 호칭어에 대한 비교로, 남편을 호칭할 때와 아내를 호칭할 때를 나누어 비교한 표이다.

<표 12> 한. 미 부부간의 호칭어 시기별 대조

	시기별 분류	한국	미얀마
아내가 남편을 호칭할 때	신혼 초	여보, 남편, 이름+씨, 오빠, 이름+야, 자기, 신랑	Maung(မောင်), k o k o (ကိုကို) , Youtkyar(ယောက်ျား).
	아이가 있는 경우	여보, 자녀이름+아빠, 자녀이름+아버지	Youtkyar(ယောက်ျား), 자녀이름+apay(ဖခင်)
	노년기	여보, 자식이름+아버지, 자손이름+할아버지, 영감	Youtkyar(ယောက်ျား), 자손이름+aabhoe(အဘိုး), 등
남편이 아내를 호칭할 때	신혼 초	여보, 아내, 이름+씨, 이름+야, 신부, 와이브,	Mainma(မိန်းမ), AChitLay(အစစ်လေး), NyiMa(ညီမ).
	아이가 있는 경우	자녀이름+엄마, 자녀이름+어머니, 여보, 와이프	MainMa(မိန်းမ), 자녀이름+amay(အမေ), NyiMa(ညီမ)
	노년기	여보, 자식이름+어머니, 자손이름+할머니	MainMa(မိန်းမ), 자손이름+aphwarr(အဖ)

위의 표와 같이 한국과 미얀마 부부의 시기별 분류를 참고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얀마의 부부 호칭어는 모두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사용해서 호칭을 한다. 한국의 경우 남편을 부를 때 ‘자녀이름+아빠’, ‘자손이름+할아버지’로 부르고, 미얀마의 경우 남편을 부를 때 ‘자녀이름+apay’, ‘자손이름+aabhoe’으로 부르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신혼 초에 부를 때, ‘이름+씨’라고 호칭할 수 있는데 아이가 생길 경우 ‘자녀이름+아빠’라고 부른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여보, 이봐요’등의 감탄사 혹은 ‘자녀이름+아빠’, ‘아빠’, 등의 각자 이름들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외에 별명으로 부르거나 호칭 없이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이름+엄마’, ‘자손이름+할머니’의 호칭과 미얀마에서의 ‘자녀이름+amay, ‘자손이름+aphwarr’는 같은 뜻의 호칭이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얀마 모두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부부 호칭어는 표음 문자로써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와이프’다. 한국에서의 ‘와이프’라는 표현은 표준화법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젊은 사람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부부호칭어에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호칭은 존재 하지 않는다.

다음 표 <표 13>, <표 14>는 한국과 미얀마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를 경우와 부모가 자식을 부를 경우의 호칭어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13> 한국과 미얀마의 자식의 부모 호칭어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		
한국	어릴 때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성인이 된 후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노년	아버님(아버지), 어머님(어머니)
미얀마	어릴 때	paypay(ပေပေ), maymay(မေမေ)
	성인이 된 후	apay(ဖခင်), paypay(ပေပေ), amay(မိခင်), maymay(မေမေ)
	노년	apay(ဖခင်), paypay(ပေပေ), amay(မိခင်), maymay(မေမေ)

<표 13>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친숙함을 담아 애정 있게 부를 때는 ‘아빠, 엄마’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또 미얀마는 한국과는 달리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된 후에 호칭에 구별이 따로 없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4) 젊을수록 다정하고 친근감이 있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아빠, 엄마’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이를 들수록 썩스러워 ‘아버지, 어머니’로 바꾸어 호칭하는 경향이 있다.

<표 14> 한국과 미얀마의 부모가 시기별 호칭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한국	혼인 전	이름, 이름+아/야, 애, 너
	혼인 후	자손이름+아빠/엄마, 이름, 아범/ 아비, 어멈/ 어미
미얀마	혼인 전	(thar/သား)아들 (thamee/သမီး)딸+이름, 아들/딸
	혼인 후	(thar)/(thamee)+이름, 아들/딸, 자손이름+아빠/엄마

<표 14>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에는 ‘이름+아/야, 애, 너’로 호칭한다. 그러다가 혼인 후 자녀를 두게 되면 아범/아비, 어멈/어미’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된다. 현대에 들어 부모가 자식을 농담으로 아들에게는 ‘아들’, 딸에게는 ‘딸아’라고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얀마에서는 혼인 전/후 구별 없이 부모가 자식을 아들에게는 (thar/아들), 딸에게는 (thamee/딸)라고 부르고 혼인 후 자식을 두게 되면 ‘자손이름+아빠/엄마’라는 호칭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부모가 아들에게 ‘tha’, 딸에게 ‘thamee’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혼인 전과 혼인 후의 호칭이 다르게 사용된다. 한편으로 미얀마는 혼인 전과 혼인 후의 호칭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한국과 미얀마의 형제자매에 관련된 호칭어를 비교한 것이다.

<표 15> 한. 미 형제자매 지칭 호칭어 비교

관계	한국	미얀마
형	형, 형님, 큰형, 작은형	ako/ko(အကို)이름
누나	누나, 누님	ama/ma(အမေ)이름
오빠	오빠	koko/ko(ကိုကို)이름
언니	언니, 큰언니(첫째언니), 작은언니(둘째언니)	ama/ma(အမေ)이름
남동생	너, 이름, 애, 동생 (미혼 또는 10년 이상 연하일 경우)	nyilay(ညီလေး), maunglay(မောင်လေး)(남동생), 이름
여동생	너, 이름, 애, 동생 (미혼 또는 10년 이상 연하일 경우)	nyimalay(ညီမလေး)(여동생), 이름

<표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과 미얀마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에는 형(남동생이 부를 때), 오빠(여동생이 부를 때)에는 성별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ako(형/오빠)를 호칭할 때 한국과 달리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누나(나이가 어린 남동생이 부를 때), 언니(나이가 어린 여동생이 부를 때)라고 성별 구별을 해서 호칭을 한다. 미얀마에서는 ama(누나/언니)를 나

이가 어린 동생이 호칭할 때에는 성별 구분 없이 사용된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ako(형)이 남동생을 호칭할 때에는 nyi lay(남동생), ama(누나)가 남동생을 호칭할 때는 maung lay) 성별을 구분해서 호칭한다.

한국에서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남동생과 여동생’을 호칭할 때만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혼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동생이면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다.

<표 16>에서는 한국과 미얀마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를 대조한 것이다.

<표 16> 한. 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호칭어 대조

관계	한국	미얀마
형의 아내	형수님	mayee(မိန်း)
언니의 남편	형부	hkellao(အိ)
오빠의 아내	새언니	yountma(ယောင့်မ)
남동생의 아내	제수씨	
누나의 남편	매부, 매형	youtpha(ယောင့်ဖာ)
여동생의 남편	서방	

<표 1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은 미얀마보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한국과 미얀마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의 차이점은, 먼저 오빠의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는 서로 다른 호칭어인 ‘새언니’와 ‘제수씨’를 사용하는데 비해 미얀마에서 오빠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yountma'로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할 때도 한국에서는 ‘매부, 매형’과 ‘서방’으로 부르는데 미얀마에서는 ‘youtpha’로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과 미얀마의 친숙질 지칭 호칭어 대조<표 17>와 한국과 미얀마의 외숙질 지칭 호칭어에 대한 대조<표 18>의 표이다.

<표 17> 한. 미 친숙질 지칭 호칭어 대조

관계	한국	미얀마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큰아빠	U(ဦး)(부계, 모계 구별 없음) Ulay(ဦးလေး)
아버지의 남동생	삼촌/아저씨(미혼인 경우), 작은 아버지(기혼)	
아버지의 누이/여동생의 남편	고모부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	작은 어머니, 숙모	Adaw(အဒေါ်)
아버지의 누이/여동생	고모	
아버지의 형의 아내	큰어머니, 큰엄마	

<표 18> 한국과 미얀마의 외숙질 지칭 호칭어 대조

관계	한국	미얀마
어머니의 남자형제	외삼촌, 아저씨, 외숙부	U(ဦး), Ulay(ဦးလေး)
어머니의 여자형제의 배우자	이모부, 아저씨	
어머니의 여자형제	이모, 아주머니	Adaw(အဒေါ်)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배우자	외숙모, 아주머니	

<표 17>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과 미얀마의 친 속질관계를 부르는 호칭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조카가 아버지 형을 부를 때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큰어머니’와 같은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게 된다. 또한, 조카가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를 때 옛날에는 숙부가 결혼 전인 경우에는 ‘삼촌’으로, 결혼 후에는 ‘작은아버지’로 구분하여 불렀으나 최근에는 결혼과 상관없이 ‘삼촌’으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조카가 아버지의 누이/동생과 그 배우자를 호칭할 경우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손윗사람인지 손아랫사람인지를 구분 없이 모두 ‘고모부’, ‘고모’로 부르게 된다.

<표 1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외삼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외삼촌의 아내에게는 ‘외숙모’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여자형제를 부를 때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어머니보다 손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이모’라는 호칭을 한다.

한국과 미얀마의 친 속질/외속질관계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버지 형/동생을 부를 때나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부를 때 ‘U’, ‘Ulay’로 부계 모계 구별 없이 호칭한다. 또한 조카가 아버지의 누이/동생을 호칭할 때나 어머니의 여자형제를 부를 때 ‘Adaw’로 부계 모계 상관없이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부계나 모계나에 따라서 다른 호칭형태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계 모계 구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 중 부계인지 모계인지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 ‘아버지쪽’, ‘어머니쪽’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구별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것은 친족호칭어와 이름을 같이 부르는 식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과 미얀마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에 대한 대조<표 19>의 표이다.

<표 19> 한. 미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

관계	한국	미얀마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를 때	아버님/아머지, 어머님/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apay(အဖေ), amay(အမေ)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아가, 애, 새아가, 자녀 이름+어미야, 며느리야	thamee(သမီး), 이름

한국에서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보다 더 예의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으로 사용하는데 현재에는 시부모를 친밀하게 여기거나 더 가까워지고자 하여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예를 갖추어야 하는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러야 한다. 반면 미얀마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호칭할 때 ‘apay’, ‘amay’ 라는 호칭만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는 신혼 초기에 ‘아가, 새아가’라고 부르지만 자녀가 생긴 경우에는 ‘자녀이름+어미야, 애야’라고 호칭한다. 미얀마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는 ‘thamee’(딸)라고 부르지만 이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자녀를 낳은 며느리를 시부모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화법에 어긋나지만, 미얀마에서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다음은 한국과 미얀마의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에 대한 대조 <표 20>의 표이다.

<표 20> 한. 미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

관계	한국	미얀마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	장모님, 장인어른, 아버지, 어머니	apay(အဖေ), amay(အမေ)
처부모가 사위를 부를 때	성+서방, 자녀이름+아비/아범, 여보게, 자네	thar(သား), 이름

한국에서는 처부모가 사위를 부를 때 자녀가 없을 경우 ‘성+서방’이라고 호칭하여 부르는 반면,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는 ‘장인어른,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으로 부른다. 미얀마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에게도 친부모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표준화법을 벗어나지만 미얀마에서는 상대방의 부모를 친부모처럼 대우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4.2 사회적 호칭어

4.2.1 한국어의 사회적 호칭어 향상

한국의 사회적 호칭어에는 신분형 호칭어, 통칭형 호칭어, 대체형 호칭어, 생략형 호칭어 등이 있다. 신분형 호칭어는 대화 상대의 사회 신분을 통하여 서로 부르는 형식이다. 신분형 호칭어는 직장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화자와 청자 간에 위계질서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사회 호칭어의 구체적인 대조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분형 호칭어를 직함형과 직업형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직함 호칭이란 상대를 부를 때 이름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다. 종종 이름과 직함이 함께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모두 직함 호칭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직위가 화자보다 높거나 존대해야 할 상황인 경우 직함에 접사 ‘-님’을 수의적으로 붙여 부른다. 직함호칭어의 유형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21> 한국어의 직함/직업 호칭어 유형

유형	예
직함+님	교수님,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성+직함/성+직함+님	김부장, 김과장/김부장님, 김과장님
성+이름+직함+님	김기욱 부장님
성+이름+직함	김기욱 부장

<표 21>에서 본 것과 같이 직함은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존대 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서 호칭어를 이루게 된다. 이름과 직함은 함께 호칭어를 이룰 수 없지만, ‘성’이나 ‘성과이름’을 붙여서 직함과 함께 호칭어가 될 수 있다. 즉, 위에서 본 예와 같이 접미사 ‘-님’은 직함에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함+님’의 사용은 청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전형적으로 자신보다윗 사람에게 사용된다. 만약 동급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로 사용된다. 반면에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게 된다면 아랫사람인 청자를 대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 부장님 혹은 김00 부장님과 같은 호칭형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 이상 있을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회사에 성이 ‘김’인 ‘부장’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김 부장님’을 사용하여도 혼동은 없다. 하지만 성이 ‘김’이고 ‘부장’이란 직함을 2명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두 명 중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청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김00 부장님’이라고 부르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직함이 존대 접미사인 ‘-님’ 없이 호칭어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름과 같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호칭형은 동급 청자나 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 동급 청자에게 사용할 때는 ‘이름+직함+님’에 비하여 친근감을 나타낸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위아래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아랫사람은 반드시 존대 접미사인 ‘-님’을 붙여 직함 호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윗사람은 반드시 ‘-님’이 아닌 어떤 유형의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여도 된다. 아랫사람에게 존대 접미사 ‘-님’이 붙는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방을 대접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직함/직업형 호칭어는 모든 직업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직업형 호칭어는 ‘변호사, 판사, 감독’ 등 화이트 칼라(White-collar : 현장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직업들은 호칭어로 사용되지만, ‘우편배달부’, ‘농부’ 등의 일반 직업들은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직업형 호칭어는 ‘직업유형’과 ‘직함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2) ㄱ. 직업유형 : 직업유형에는 간호사, 감독, 강사, 경리, 경찰, 경찰관, 기사, 기술사, 기자, 목사,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 승무원 등

ㄴ. 직함유형 : 직함유형 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의원, 군수, 대장, 단장, 회장, 총재, 이사, 사장, 감사, 재판장, 부장, 국장, 교수, 조교 등

박정운(1997/512면)에 따르면 청자가 선생이든 아니든 간에 화이트칼라층의 사람으로 보이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든지, 또 청자가 누구의 할머니든 아니든 간에 연세가 있어 보이면 할머니라고 부르는 등의 청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직함이나 친족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함이나 친족어 등에 근거한 호칭어들을 ‘통칭형 호칭어’라고 정의하였다. 즉, 통칭형 호칭어는 청자에 대한 직업, 직함, 연령 등이 엄밀한 구분이 없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 형식이다. 사용범위가 넓고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은 통칭형 호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칭형 호칭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3) ㄱ. 일반화된 통칭형 호칭어 (학생, 선생님, 사장님, 등)
 - ㄴ. 일반화된 친족형 호칭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등)
 - ㄷ. 외관지시형 호칭어 (총각, 아가씨, 등)

(3)ㄱ. 한국에서는 일반화된 통칭형 호칭어는 대표적으로 ‘학생’,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등이 있다.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일컫는 말이지만 청소년으로 보이는 10대와 20대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로 나타낸다. ‘선생님’은 원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직업이지만 통칭형 호칭어로 사용할 때 청자가 꼭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선생님으로 부르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부를 수 있으며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사장님’은 원래는 회사의 책임자에게 사용하는 일반화된 통칭형 직함호칭이지만, 상대방의 직함을 확실하지 않을 때에도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회사에서 높은 직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게나 식당의 주인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모님’은 스승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지만 직장에서 상사의 부인에게도 사용한다. 또한 쇼핑장소에 종업원이 이미 결혼한 여성에게 하는 존대 표현이기도 한다.

(3)ㄴ. 한국에서는 일반화된 친족형 호칭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언니’, ‘오빠’ 등을 사용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통칭형 호칭어로 주로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녀에게 화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다.

‘아저씨’, ‘아줌마’같은 경우는 각각 남자와 여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며, 특정한 친족 사이에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호칭어로 널리 사용한다. 그런데 청자가 화자의 아저씨나 아줌마가 아니라 청자의 나이로 보면 전형적으로 누군가의 아저씨나 아줌마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호칭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은 나이가 많다는 느낌을 주고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남성에게 ‘아저씨’로 부르는 것에 비하여 여성에게 부르는 ‘아줌마’라는 호칭의 사용은 제한을 많이 받는다.5)

‘언니’는 보통 여성화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여성청자를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나 널리 가게나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화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언니’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여성 손님에게도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6)

‘오빠’는 친남매간의 손위 남자형제를 호칭하는 친족호칭어나, 최근 들어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남자친구를 이르는 말로 쓰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부르는 호칭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호칭어로서의 ‘오빠’는 남자친구 또는 호감이 가는 남성으로 대상에는 제약이 있다. 물론 상행위를 할 경우나 특수한 집단에서 ‘언니’와 같은 수단으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7)

5) 고륙양(2005)에는 (2004)년에 서울에서 거주하는 10명의 20대와 10명의 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결과에 의하면 75%의 피조사자는 ‘아줌마’로 호칭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였다. 그 중에 20대 피조사의 불쾌감 비율은 100%이고 30대 피조사자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강희숙(2002)에 의하며 ‘언니’는 서비스업에서 여성 손님들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7) 한희성(2015)에는 사회적 호칭어로서의 ‘오빠’는 남자친구나 호감이 가는 남자 대상에는 제약이 있다고 나타났다.

(3)ㄷ. 한국의 외관지시형 호칭어에는 일반적으로 애, 총각, 아가씨, 젊은이 등을 사용한다. ‘애’는 ‘이 아이’의 줄임말이고 젊은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어이지만 존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학생’이나 ‘젊은이’로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총각’과 ‘아가씨’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를 대접하여 사용하는 호칭이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상 화자가 20대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는 상대방이 ‘총각’이나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외관상으로 ‘총각’이나 ‘아가씨’와 비슷한 나이로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가씨’는 과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사용하는 통칭으로서 상대방의 신분을 낮추는 의미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한국어의 대체형 호칭어는 주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말을 걸려고 할 때 적절한 호칭을 찾기 어려울 때 이선화(2002)에는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한다고 했다. 처소지칭형과 주의끌기형 호칭어이다. 처소지칭형 호칭어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지 않고 장소를 나타내는 ‘여기’, ‘저기’에 종결어미 ‘요’를 붙여서 독특한 형태로서 대화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한다.

- (4) ㄱ. 여기요/ ဒီမာ [demhar]
 ㄴ. 저기요/ အဲဒီမာ [aelldemhar]

(4)ㄱ. ‘여기요’는 음식을 주문할 때 널리 사용한다. 또한(4)ㄴ. ‘저기요’는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의끌기형 호칭어는 보통 청자의 주의를 화자 쪽으로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 (5) ㄱ. 미안합니다만/ စိတ်မကောင်းပဲဘူး [hcatemakaungparbhū]
 ㄴ. 실례지만/ တဆိတ်လကော [t sate lout]

한국의 생략형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

- (6) ㄱ. 화자가 말을 일부러 걸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을 때
- ㄴ. 청자에 대한 적절한 호칭을 찾지 못하거나 피하는 상황
- ㄷ. 일부러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

(6)ㄱ. 가게에서 굳이 판매원 직원에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격이나 다른 것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6)ㄴ. 부부관계 호칭어에 있어 시누이의 남편에 대하여 아기가 있는 경우는 고모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호칭을 찾을 수 없다.⁸⁾

(6)ㄷ.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의 위계를 드러내기 위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 굳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다.

8)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 522면 참조.

4.2.2 미얀마어의 사회적 호칭어 향상

한국의 사회적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어도 신분형 호칭어, 통칭형 호칭어, 대체형 호칭어, 생략형 호칭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 미얀마 사회는 서열의식이 유달리 강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 그런 의식이 호칭어에도 **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직함 호칭어를 부르거나 호칭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미얀마는 한국과 달리 직함 호칭어 사용비율이 비교적으로 낮은 편이다. 미얀마의 직함 호칭어에는 총리, 사님, 총장님, 변호님, 비서 등 직위를 나타내는 호칭어가 있고 매니저님, MD, Secretary 등 영어에서 그로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KYAW YE` HTET (2010) 에서 분류하고 있는 미얀마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다음 <표 22>과 같다.

<표 22> 미얀마어 직함/직업 호칭어 유형

유형	예
직업명+ 이름	Doctor+KO KO LWIN
직업명+ 존칭+ 이름	감독 +KO +AUNG MIN THEIN
직위명+ 이름	중위+KHHIN KHIN
직위+ 학명+ 이름 존칭 + 이름	국방부장 +Doctor+U+MYA LWIN

미얀마어의 직함 호칭어에 있던 직업명+이름 형태는 성 구별 없이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공식인 행사나 문어체, 전화통화 할 때만 사용하는 형태이며 면담의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 의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 볼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Doctor Ko Lwin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 직위 명 대신 호칭상이 남성인 경우 'Sarar'라고 부르거나 직위 명 (Doctor)라고만 부른다. 상대방이 영화배우나 다른 직업인 경우 이름호칭어나 친족호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어의 직함 호칭어에 있어 직업명+이름 형태는 위와 같이 성 구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나 문어체에서만 사용한다.

미얀마어의 직함 호칭어에 있어 직명+이름 형태는 성 구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군대나 경찰들에게 사용한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성청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남성청자에게 사용한다.

직위+학명+이름 존칭+이름 형태는 상대방을 최상으로 높여서 사용하는 직함 호칭어 형태이며 뉴스나 신문 같은 일정한 공식적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대일 대화에서는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격식을 갖추고 싶은 경우 ' Sayar '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위의 사회적 호칭어 형태들을 보면 한국과 달리 미얀마에서는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 사람의 심리는 서열 의식과 자신을 낮추려는 의도 때문에 직함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 간의 친근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낮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직함 호칭어가 발달한 한국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일반화된 통칭형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kyawwangyasarr’ (학생), ‘Sarrar’(선생), ‘thuhtte’(사장), ‘thuhttegataw’(사모), 등이 있다.

- (7) ㄱ. 학생 / က ဇာ ယှာꣳ [kyawwangya sarr]
 ㄴ. 선생 / ဆရာ [sarar](남성)
 ㄷ. 선생 / ဆရာမ [sararm](여성)
 ㄹ. 사장 / အကဲအက [aakyeaaakell]
 ㅁ. 사모 / သူဌေးကတော် [thuhtaykataw]

(7)ㄱ. ‘kyawwangya sarr’(학생/က ဇာ ယှာꣳ)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나 학교에서 학생 끼리나 학교 근처에서 학생처럼 보이는 10대나 20대 젊은 남녀에게 널리 사용된다.

(7)ㄴ. ‘Sarrar’(선생/ဆရာ)은 미얀마 사회에서 일반화된 통칭형 호칭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Sayar’라는 호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해보자면 1979년도에 미얀마에서 발간된 미얀마어 사전(1979 -1)에서는 ‘Sayar ’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Sayar’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나타냈다.

(7)ㄷ. ‘Sararm’(ဆရာမ)는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다. 그러나 이는 남성 호칭 Sayar와 달리 여성 청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가 없으며 교사나,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한다.

(7)ㄹ. ‘Aakyeaaakell’(사장/အကဲအက)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관리자에게나 소비자에게도 부를 수 있는 호칭이다.

(7)ㅁ. ‘Aakyeaaakellkataw’(사모/သူဌေးကတော်)은 사장님의 부인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식당이나 가게나 기업 책임자에게 성별 구분 없이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남성에게는 ‘thuhtte’(사장), 여성에게는 ‘thuhttekataw’(사모)이라고 성별 구분을 해서 부른다.

미얀마에서 일반화된 친족호칭어로서는 aabhoe(အဘိုး), aphwarr(အဖေ), aaitko(အကို), aaitm(အမ) 등이 있다.

- (8) ㄱ. 할아버지 / အဘိုး [aabhoe]
 ㄴ. 할머니 / အမ [aphwarr]
 ㄷ. 형/오빠 / အကို [aaitko]
 ㄹ. 누나/언니 / အမ [aaitm]

미얀마에서도 한국과 같이 (8)ㄱ. ‘할아버지(အဘိုး)’, (8)ㄴ. ‘할머니(အမ)’는 일반화된 친족형 호칭어로 주로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녀에게 화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으로 양국의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8)ㄷ. 형/오빠 (အကို), (8)ㄹ. 언니/누나(အမ)는 친남매간의 순위 형제자매를 호칭하는 친족호칭이다. 보통 Ama(언니/누나)를 여성화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여성청자에게 부르거나 서로 처음 보는 사이나 낯선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다. 그러나 널리 가게나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화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언니’라 부를 수 있고 여성 배우나 가수 또한 여성 손님에게도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Ako(형/오빠)는 미얀마와 한국에서의 같은 사용으로 친남매간의 순위 남자형제를 호칭하는 친족호칭이다.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남자친구를 이르는 말로 쓰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부를 때나 남성 배우나 가수한테도 널리 사용하는 호칭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Ako(형/오빠), Ama(언니/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미얀마어의 특징은 한국과 달리 성별 구분 상관없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얀마의 외관지시형 호칭어에는 일반적으로 ‘KaungLay’(총각), ‘Kaung MaLay’(아가씨)등을 사용한다.

- (9) ㄱ. 총각 / လူပျာ [luupyaa]
 ㄴ. 아가씨 / မိန်းကလေး [meinkalay]

(9)ㄱ. 'luupyaa'(총각)과 (9)ㄴ. 'meinkalay'(아가씨)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를 대접하여 사용하는 호칭이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상 화자가 10대나 20대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는 상대방이 '총각'이나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외관상으로 '총각'이나 '아가씨'와 비슷한 나이로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사회 상황을 할 때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다. 또한 어른들이 식당이나 가게, 길을 물어볼 때나 처음 보는 10대나 20대 남녀한테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다.

미얀마의 대체형 호칭어에서는 처소지칭형 호칭어만 사용하고 주의끝기형 호칭어는 없다. 미얀마의 청소지칭형 호칭어에는 'demhar', 'aelldemhar' 등 있고 이러한 호칭어들은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 (10) ㄱ. ဒီမာ [demhar]
 ㄴ. အီဒီမာ [aelldemhar]

(10)ㄱ. 'demahr'는 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고 (10)ㄴ. 'aelldemhar'는 사장이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 널리 사용하는 호칭이다. 미얀마의 생략형 호칭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여 위에 한국의 생략형 호칭어 설명한 바와 같다(위에 34면 참조). 생략형 호칭어는 실생활에서 상황에 따라 널리 사용함으로 사회 호칭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유형이다.

4.2.3 한국과 미얀마의 사회 호칭어에 대한 비교

아래 표는 한국과 미얀마의 직함/직업 호칭어에 대해 대조한 표이다.

<표 23> 한국과 미얀마의 직함/직업 호칭어 차이

	유형	예
한국	직함+님	교수님, 사장님, 부장님, 대표님, 등
	성+직함/성+직함+님	김교수님, 김사장님, 김부장님, 등
	성+이름+직함+님	김희섭 교수님
	성+이름+직함	김기욱 부장
미얀마	직업명+이름	DOCTOR+KO MO (ဆရာဝန် ကိုမိုး) (sararwin ko moe)
	직업명+이름존칭+이름	DIRECTOR+MA+MAY HTTU KHA (ဒါရိုက်တာ မ:ထူးခ) (darakhtu ma:thue)
	직위명+이름	POST POSITION+KHIN (ရာထူးအဆင့် အမည်) (yarhttuarchayarnay+khin)
	직위+학명+이름존칭+이름	HEAD OF DEPARTMENT DOCTOR U AUNG NAY (ဌာနမှူး : ဆရာဝန်ဦးအောင်နော်) (thathayarnay : sarawun u aung naye)

한국어의 직함/직업 호칭어의 ‘직함+님’의 사용은 청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전형적으로 자신보다윗사람에게 사용된다. 만약 동급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로 사용된다. 반면에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게 된다면 아랫사람인 청자를 대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 부장님 혹은 김00 부장님과 같은 호칭형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 이상 있을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한편 미얀마어의 직함 호칭어에 있던 직업명+이름 형태는 성 구별 없이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공식적인 행사나 문어체, 전화통화 할 때만 사용하는 형태이며 면화의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담당 의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 볼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Doctor Thu Ya Lwin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 일일 화에서는 직위 명 대신 호칭상이 남성인 경우 Sayar라고 부르거나 직위 명(Doctor) 라고만 부른다. 상대방이 영화배우나 다른 직업인 경우 이름호칭어나 친족 호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직함 호칭어에 성이 ‘김’이고 ‘부장’이란 직함을 2명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두 명 중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청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성+이름+직함+님’ 형태를 사용하여 ‘김 00 부장님’이라고 부르면 구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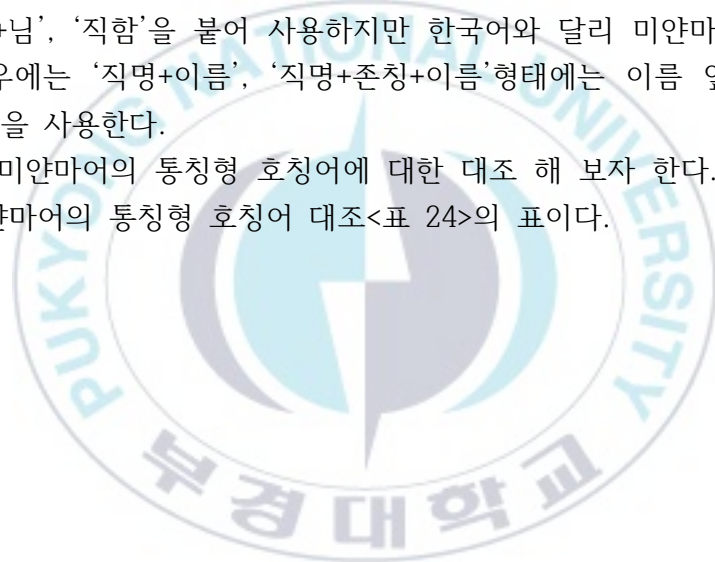
미얀마어의 직함 호칭어에 있어 직명+이름 형태는 일반적으로 군대나 경찰들에게 사용한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성청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남성청자에게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직함이 존대 접미사인 ‘-님’ 없이 호칭어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름과 같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호칭형은 동급 청자나 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 동급 청자에게 사용할 때는 ‘이름+직함+님’에 비하여 친근감을 나타낸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위아래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아랫사람은 반드시 존대 접미사인 ‘-님’을 붙여 직함 호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윗사람은 반드시 ‘-님’이 아닌 어떤 유형의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여도 된다. 아랫사람에게 존대 접미사 ‘-님’이 붙는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방을 대접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얀마어의 직함/직업 호칭어에도 직위+학명+이름 존칭+이름 형태는 상대방을 최상으로 높여서 사용하는 직함 호칭어 형태이며 뉴스나 신문 같은 일정한 공식적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대일 대화에서는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한 격식을 갖추고 싶은 경우 'Sarar'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직함/직업 호칭어의 경우 공통점은 한국어의 직함 호칭어에는윗사람에게 사용하는 '성+이름+직함+님' 형태는 미얀마어의 '직업명+이름 존칭+이름'과 같은 사용으로 나타낸다. 한국어 직함 호칭어에는 '님'을 사용되고 미얀마 직함 호칭어에는 존칭을 사용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직함/직업 호칭어의 경우 차이점도 있다. 한국어 직함/직업 호칭어의 경우에는 '성+이름+직함+님', '성+이름+직함' 형태에는 이름 뒤에 '직함+님', '직함'을 붙여 사용하지만 한국어와 달리 미얀마어 직함 호칭어의 경우에는 '직명+이름', '직명+존칭+이름'형태에는 이름 앞에 '직명', '직명+존칭'을 사용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통칭형 호칭어에 대한 대조 해 보자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통칭형 호칭어 대조<표 24>의 표이다.



<표 24> 한. 미 통칭형 호칭어 대조

국가 \ 유형	신분형 호칭어	친족형 호칭어	외관지시형 호칭어
한국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학생 등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등	애, 총각, 아기씨, 젊은이 등
미얀마	သုဠ်တေး(suuhtayy), ဆရာ(sarar), ကော့ငှာသား(kyaunggsarr)	အဖ(aphwarr), အဘိုး(aabhoe), ဦးလေး(ulayy), အဒေ(adaw)	လူပျော(luupyao), မိန်းကလေး(meinkalayy), လူငှာ(luungaal),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통칭형 호칭어를 대조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일반화된 친족 호칭어로 Apay(아버지), Amay(어머니)는 자기 부모에게만 부를 때 사용할 수 있고 친한 친구 부모나 상대방의 부모를 호칭할 때 U Lay(아저씨), Daw Lay(아줌마)등의 호칭을 널리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버님’, ‘어머님’은 자기 부모 외에 친한 친구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일반화된 친족 호칭어에는 미얀마와 한국에서 직접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체형 호칭어에 대해 대조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체형 호칭어의 대한 대조<표 25>의 표이다.

<표 25> 한. 미 대체형 호칭어 대조

국가 \ 유형	처소지칭형 호칭어	주의 끝기형 호칭어
한국	저기요, 여기요, 등	미안하지만, 미안한데, 실례지만, 실례합니다만, 등
미얀마	ဒီမှာ ၊ (demhar) အဲဒီမှာ ၊ (aelldemhar)	없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체형 호칭어에 대한 대조 <표 25>를 보면 한국과 달리 미얀마의 대체형 호칭어에서는 처소지칭형 호칭어만 사용하고 주의끝기형 호칭어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4.3. 한. 미 사회적 호칭어 사용에 대한 비교

4.3.1 결정 요인

사회적 호칭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두 나라의 사회 호칭 체계를 대조하는 데 사회 호칭어를 열거하기보다는 사회 호칭어 선택에 대한 다양한 규칙들을 보여주고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는 같은 상황에서 사회 호칭어를 선택할 때 한국과 미얀마 간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유형에 속해도 문화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바탕이 될 때 한국과 미얀마의 사회 호칭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호칭어 선택에 관한 연구는 Brown & Gilman(1960) 시작으로 Brown & Ford(1961), Erven-Tripp(1972)으로 발전하였다. Brown & Gilman이 유럽의 2인칭 대명사를 선택하는 요인을 사회 구조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요인으로 '권세(Power)'와 '유대(Solidarity)'를 들었다. Brown & Ford(1961)는 설문지 조사 등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친밀감, 연령, 사회적 지위에 주목하여 호칭을 결정하는 구조를 끌어내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호칭을 선택할 때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황보나영(1992)이 있다. 황보나영(1992)은 대학생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하여 호칭이 달라지는 변수를 파악하였다. 그는 상황 변수와 참여자 변수로 나누었다. 상황 변수는 '아는 사이의 여부, 격식선, 친밀도'로 구성하고 참여자 변수에는 '연령'과 '성'으로 구성하였다. 미얀마에는 아직 까지 호칭어 선택에 관한 연구는 없다.

위의 연구들은 한 언어 체계에서 호칭어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다. 다른 언어체계의 호칭어를 다루려면 각 국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고려해야 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관점을 참고하여 호칭어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관계 요인, 참여자 요인, 상황 요인, 사회/문화 환경 요인 등 있다. (이익섭(2001), 왕한석(2005) 참조.)

관계 요인은 담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의미하며 관계는 크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수직 관계는 권력과 연령으로 나누고 수평 관계는 친소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친소 관계는 아는 사이의 여부와 친밀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다음 <표 26>로 정리해 보자 한다.

<표 26> 호칭어 사용 관계 요인

관계	수직 관계	권세(지위, 신분, 연령 등)	
	수평 관계	아는 사이	친한 사이
			친하지 않은 사이
		모르는 사이	적대감이 있음
			일반인

위에 <표 26>를 보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아주 다양한 관계가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수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직 관계는 권세와 관련되는 요인이다. 권세는 화자와 청자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힘을 말한다. 그는 부모와 자녀 사이, 연장자와 연하자 사이, 귀족과 평민 사이, 부장과 부하 직원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는 권세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권세는 호칭어 사용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호칭어 선택에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령, 직위, 항력을 모두 권세로 통합하여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11). 영빈아, 내일 회사에서 보자.

(11) 보면 발화자는 ‘영빈’이라는 사람과 나이 대비가 나타난다. 발화자는 적어도 ‘영빈’이라는 사람과 같은 나이이거나 많아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만약 발화자가 ‘영빈’이라는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이런 식으로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미얀마에서도 호칭을 선택하는 데 이와 같은 권세 요인이 나타난다.

(12). Min Aung,adee sar ywat ta sate lout mate tuu sawe pay par.

(민 아웅, 그 서류 좀 복사 해 줘요.)

위의 (12)는 미얀마 직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Min Aung’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수평 관계는 사람 사이에 친밀도에 따라 다르다. 보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은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친하지 않은 사이와 절친한 사이이다. 모르는 사이는 또 적대감이 있는 사이, 일반적인 사이가 있다. 이것은 화자와 청자에게 가지는 인식적 태도에 따라 나눈 것이다.

‘당신’은 한국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다. ‘당신’은 부부 사이에 쓰는 호칭인데 사회 호칭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대를 아주 높이려고 쓰이는 것을 제외하며 주로 불쾌감이 생긴 사람에게 사용한다.

(13). 당신 뭘데, 뭐하는 사람이야?

(13)에 보면 상당히 시비조의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술 먹고 시비걸 때나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불쾌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아마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မင်း) ‘min’라는 호칭이 있다.

(14). မင်းဘာကောလဲ ? (min bar kaung lae?)

(14)의 ‘min’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호칭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참여자 요인은 화자와 청자와 관련되는 요인이다. 보통 화자를 중심으로 다룬다. 비록 참여자인 청자의 성별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요인으로는 화자의 심리, 교양, 성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성별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는 청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이것은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데 친족 호칭어인 ‘형/오빠’, ‘누나/언니’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15). 영빈 형/오빠, 지금 뭐 하세요?

(15)에 보면 대화 참여자인 화자가 남자라면 상대방을 ‘형’이라고 부르고 여자라면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얀마에서는 성별을 구분 없이 ‘အိတ်ကို (aaitko)’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화자의 심리에 따라 호칭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 청자가 화자를 친하게 대하려고 하는지 거리를 두고 대하려고 하는지를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다.

상황 요인은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비공식적인 상황에는 ‘오빠/언니,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직장에서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직함이 있는 상사에게 ‘교수님’, ‘사장님’, ‘부장님’ 등의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 또한 직함이 없는 동료에게 ‘선생님’, ‘씨’, ‘여사’라고 부른다.

미얀마에서는 한국과 달리 직함 호칭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편이다. 미얀마에서는 직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Sarar’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한다.

호칭어에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다. 특히 한국과 미얀마의 호칭어를 대비하는 데 두 나라 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점을 찾아내야만 올바른 호칭어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과 미얀마는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특히 한국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나이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보다 연상인 사람이라면 한 살이 더 많다 하여도 이름만으로 부르지 않고 ‘형/오빠, 누나/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미얀마 사회에서는 나이 차이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님)’이라고 접미사 ‘님’을 붙여서 부른다. 미얀마에서는 어떤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처럼 접미사 ‘님’을 직함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호칭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4.3.2 한. 미 상황적 요인과 맥락에 따른 차이

한국과 미얀마의 상황적 요인과 맥락별 차이에 대해 대조하고자 한다.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학교는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너무 의미가 있는 곳이다. 대학교에서는 교수, 선배, 동지 학우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학교에서도 신분이나 상황을 맞추어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일단 한국에서 대학생끼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표 27>한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어의 표이다. <표 27>는 박은송(2008)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표 27> 한국 대학생들 사용하는 호칭어

학번	나이	유 대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
화자가 선배일 경우	많음	이름+아/야	이름+아/야, 이름+씨
	어림	(이름)+형/오빠(언니/누나)	(이름)+형/오빠(언니/누나), 이름+씨
화자가 후배일 경우	많음	(이름)+아/야, (이름)+선배	(이름)+선배, (이름)+씨
	어림	(이름)+형/오빠(언니/누나), (이름)+선배(님)	(이름)+선배(님), (이름)+형/오빠(언니/누나)

동기	많음	이름+아/야	이름+아/야, 이름+씨
	어림	(이름)+형/오빠(언니/누나)	(이름)+형/오빠(언니/누나), 이름+씨

<표 27>를 보면 한국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는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박은송(2008)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어는 ‘형/오빠, 누나/언니’와 같은 친족 호칭들이다. 또는 ‘이름+아/야’, ‘이름 +씨’, ‘성+이름+씨’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6) ㄱ. ‘이름+아/야’ 형태 > 태민아 같이 가자.
 ㄴ. ‘이름 +씨’ 형태 > 태민씨 주말에 뭐 해요?
 ㄷ. ‘성+이름+씨’ 형태 > 박태민씨 과제 제출 했어요?

(16)ㄱ. ‘이름+아/야’ 형태이고 (16)ㄴ.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으로는 (16)ㄷ. ‘성+이름+씨’보다는 ‘이름+씨’ 형태를 더 많이 사용되며 주로 나이가 많으면서도 별로 친하지 않은 후배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또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호칭어를 사용하는 데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성별은 호칭어를 사용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빠’라는 호칭어는 다른 호칭어보다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으므로 다른 호칭보다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9) 한국에서는 교수에게 ‘교수님’이라고, 교직원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다. 다만 ‘성+교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없다.10)

미얀마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은 다음 <표 28>미얀마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어에서 알 수 있다.

9) 유정정 (2010)에 의하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여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10) 박은송 (2008)에 의하면 학생이 ‘성+교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어 유형은 없다.

<표 28> 미얀마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어

학번	유대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
화자가 선배일 경우	이름 (အမည်), 이름 (အမည်) +ya(ရ)	이름(အမည်)(aamai)
화자가 후배일 경우	이름 (အမည်), 이름 (အမည်) +ya (ရ)	ko()+이름/오빠/형+이름 (남성) ma()+이름/누나/언니+이름 (여성)
동기	이름 (အမည်), 이름 (အမည်) +ya (ရ)	이름(အမည်)(aamai)

미얀마에서는 한국과 달리 성별과 상관없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얀마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호칭 ‘이름+ya’ 유형은 화자와 청자간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미얀마 대학생은 친한 사이면 학번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름 , 이름 + ya’ 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이나 미얀마 대학생은 아직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교적으로 편하게 부를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주로 ‘이름 , 이름 + ya’, 별명, 애칭 등 친밀감이 있는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에서는 주로 ‘형/오빠, 누나/언니’ 같은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한 살 차이 나더라도 함부로 이름으로 호칭할 수 없다. 미얀마에서는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엄격한 선후배 문화와 관련이 있다. 또 미얀마에서는 여자 동기끼리는 서로 간에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 미얀마에서는 이름 앞에 ‘ko , ma’ 라는 존칭을 붙여 호칭을 사용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름 뒤에 ‘형/오빠, 누나/언니’ 라는 친족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미얀마와 다른 점이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는 다른 호칭어에 비해 광범위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 호칭어이다. 대화하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나이 등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호칭어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이나 미얀마 직장은 사람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 호칭어나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장 상황에서 호칭어를 선택할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알아야 호칭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간에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우선 한국 직장에서 호칭어의 선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직장에서는 직함이 있는 사람에게 호칭어를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다음은 한국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표 29>의 표이다.

<표 29> 한국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구분	직함	형태
상사		직함+님 , 성+직함+님
아래 직원	직함 없음	성+이름+씨, 이름+씨
	직함 있음	성+직함, 성+이름+씨, 이름+씨
동료	직함 없음	성+이름+씨, 이름+씨, 성+선배, 이름+선배
	직함 있음	성+직함

한국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는 ‘직함+님 , 성+직함+님’으로 호칭한다. 그리고 상사는 직함 있는 아래 사람을 ‘성+직함, 성+이름+씨, 이름+씨’ 형태로 부르고 직함 없는 아래 사람을 ‘성+이름+씨, 이름+씨’ 형태로 호칭을 한다. 직장에서 동료끼리는 직함이 없는 경우에 ‘성+이름+씨, 이름+씨, 성+선배, 이름+선배’ 형태를 사용한다. 동료끼리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성+직함’ 형태로 호칭을 한다. 서로 친한 관계라면 ‘이름+씨’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특히 아랫사람은윗사람의 이름을 절대 부르면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의 직위가 높은 경우 자기보다 나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직함+님’으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직장에서 호칭어 사용을 결정하는 한가지 요인은 바로 직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표 30> 미얀마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의 표이다.

<표 30> 미얀마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구분	직함	형태
상사		직함+이름
아래 직원	직함 없음	Mg/Ma존칭+이름('Mg(မောင်)=남성의 경우, Ma(မ)=여성의 경우)
	직함 있음	직함+이름(အမည်)(aamai)
동료	직함 없음	이름(အမည်)(aamai)
	직함 있음	직함+이름(အမည်)(aamai)

미얀마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는 ‘직함+이름’형태를 사용한다. 또 상사는 직함이 있는 아랫사람을 ‘Mg/Ma 존칭+이름’(Mg=남성의 경우, Ma=여성의 경우)’라고 부른다. 직함 없는 아랫사람을 ‘존칭 + 이름’ 형태로 호칭을 사용한다. 미얀마 직장에서 동료끼리 직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름’만으로도 호칭할 수 있다. 동료끼리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 + 이름’을 사용해서 호칭한다. 미얀마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동료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남성의 경우/Nyi Lay, 영성의 경우/Nyi Ma Lay’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친한 동료라면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한국에서는 한 살 차이 나도 이름을 부르면 결례라고 생각을 한다. 미얀마 직장에서는 친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직장에서는 거의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장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함이나 ‘이름+씨’로 부르는 것이 존재감을 준다. 그러나 친밀감은 떨어진다.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는 대화 상대방은 모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청자의 정확한 ‘연령’을 알 수 없고 청자와의 ‘친밀감’이 없고 청자의 정확한 ‘직위’도 알 수 없으므로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청자의 연령과 신분을 예측하여 호칭어를 선택한다. 이때 상대방의 겉으로 보이는 연령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표 31>의 표이다.

<표 31> 한국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장소	연령			
	10대	20-30대	30-60대	60이상
길거리	학생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만, 저기요, 등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만..., 저기요, 선생님, 아주머니, 아저씨, 등.....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등
가게		여기요, 사장님, 아저씨, 등	사장님, 아저씨, 아주머니, 등	사장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식당		여기요, 저기요, 이모, 등	총각, 아저씨, 아주머니, 여기요, 등	여기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묻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누구나 생길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겉으로 보이는 연령에 따라 호칭어를 선택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10대를 그냥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한다. 또 식당에 갔을 때 쉽게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호칭어를 사용하고 아닌 경우에는 처소를 지시하는 ‘여기요/저기요’를 사용할 수 있고 청자의 나이가 30-60대 경우에는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김희숙(2002)에 의하면 ‘아주머니’는 친족 명칭 ‘아주버니’와 더불어 대우의 기능이 있고 축소형인 ‘아줌마’는 재래시장에서 자주 등장하여 비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¹¹⁾ 그런 의미로서 ‘아줌마’는 한국 사회에서 ‘낮은 지위의, 촌스러운, 나이 들어 보이는’ 여성의 대한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조남민(2008) 참조). 다음은 미얀마에서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 미얀마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의 표이다.

11) 조선국어문화원(1996)에서도 ‘아줌마’는 존대하는 말이 아니라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표 32> 미얀마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장소	연령			
	10대	20-30대	30-60대	60이상
길거리	Tharlay(), Thameelay()	Aaitko(အိုက), Aaitm(အိုမ်), 등		
가게		Aaitko(အိုက), Aaitm(အိုမ်), 등	Sayar(ဆာယာ), Ulay(ဦးလှေး), Adaw(အသ), 등	Aabhoe(အဘိုး), Aphwarr(အဖ), 등
식당		Demhar(ဒီမာ), Aaitko(အိုက), Aaitm(အိုမ်), 등		

위의 <표 32>를 보면 미얀마에서도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대화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으로 호칭을 선택할 때 주로 연령을 예측하여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연령층에 따라 호칭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모를 때 ‘저기요, 여기요’¹²⁾라는 처소 지칭 호칭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여기요, 저기요’를 식당에서만 널리 사용한다.

12) 이선화(2002)에 의하면 ‘여기요’는 ‘저기요’보다 훨씬 더 상황 의존적인 호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음식 주문하기 상황에서 특별히 ‘여기요’ 호칭을 많이 사용된 것은 식당이라는 장소에 특성상 화자가 정해진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자를 부를 때 ‘여기요’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4.3.3 한. 미 호칭어의 특징

한국어에서는 친족 간의 서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서열이 앞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물론 형이나 누나도 ‘너’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이다. 이익섭 (사회언어학(1994))에서는 한국어의 호칭어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어에서 호칭어로 쓰이는 명사에는 호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17. 아, 야, 이 - 기육아, 철구야 등

한국어 호칭어에는 접미사 ‘님’이 잘 붙어 쓰인다. 호칭어로 쓰는 대부분 명사에 접미사 ‘님’이 붙어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 또한 접미사 ‘님’은 성별을 구분 없이 사용한다.

18. 교수님, 선생님, 사장님,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 등

미얀마어 이름 호칭어에는 성이 없이 음절별로 사용한다. 미얀마어 이름 호칭어에도 명사에 붙어 쓰이는 호격조사 ‘Yeai, Ya, Ye’가 있다.¹³⁾ 한국어에는 명사에 접미사 ‘님’을 붙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쓰임이 널리 사용된다. 미얀마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명사에 접미사 ‘님’을 붙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쓰임은 없다. 그러나 미얀마 직장 호칭에는 존칭을 사용한다. 남성의 경우 ‘U, Ko, Mg’, 여성의 경우 ‘Daw, Ma’, 존칭을 사용할 수 있다. 미얀마어의 경우에는 친숙질의 대한 호칭과 외숙질의 대한 호칭은 같은 사용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에는 이름 뒤에 ‘직함+님’, ‘직함’을 붙어 사용하지만 미얀마어 직함 호칭어의 경우에는 이름 앞에 직함+존칭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Ako(형/오빠), Ama(언니/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미얀마어의 특징은 한국과 달리 성별 구분 상관없이 호칭을 하는 것이다.

13) 미얀마 이름 호칭에 있어 '이름+yeai' 유형은 청자가 화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호칭이다. 미얀마 이름 호칭에 '이름+ya' 유형은 화자와 청자 간의 친근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이름 호칭에 '이름+ye' 유형은 청자에게 위로하거나 사과할 때 쓰이는 호칭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를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해 보았다. 언어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할 때 언어 예절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언어 예절을 말할 때 호칭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호칭어는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의사소통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적당한 호칭어를 선택하여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호칭어체계는 복잡하다. 호칭어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제 2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개념과 유형에 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그 표현이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다. 서정수(1984)에서는 ‘부름말’이란 어떤 이를 부르는 데 쓰는 말로 정의하였고 박갑수(1989)와 정재도(1989)에서도 호칭어를 ‘부름말’이라 하였다. 김혜숙(1991)은 호칭어는 화자가 그 상대자를 앞에서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부름말’로 정의하였고, 이무영(1994)에서는 호칭어는 특정의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명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익섭(2000)에서는 호칭어는 상대방을 그 면전에서 직접 지시 형식으로 구분한다. 지칭어는 제3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이선화(2002)에서도 호칭어를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 정의하였다. 왕한석(2005)에서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을 호칭어라고 하였다. 양영희(2006)에서는 호칭어는 상대를 부르는 개념이고 지칭어는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들을 호칭어로 통칭한다.

미얀마어에서 호칭어에 대한 개념을 Maung Khin Min (2007)에서는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 사회적인 직위, 친속 관계, 성별, 화자가 청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까지 반영하는 명칭이라고 정의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도 '호칭어'란 대면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를 박갑수(1989)에는 감탄사형, 성명-접사형, 신분명형, 친족어 대용형, 성명(-조사)형, 명사형, 외래어형, 등으로 정리하였고, 이익섭(1994)는 대명사 호칭, 성명과 직함, 친족 호칭으로 정리하였다. 박선민(1995)는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교분이 있는 경우의 담화에 쓰이는 호칭어,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 교분이 없는 경우의 담화에 쓰이는 호칭어(성명+접사, 신분명형, 성명(+조사)형, 친족명형, 택호형, 외래어형)로 정리하였다. 이선화(2002)에서는 간접 호칭(친족어형, 명사형, 직함형), 직접 호칭(주의끝기형, 처소지칭형, 생략형)과 한윤정(2003)에서는 성명+접사, 성명(+조사), (성+)직함명, 친족 호칭어, 대명사, 택호, 외래어, 여기요, 통칭적 호칭어(친족어 호칭어의 통칭형, 직함 호칭어 통칭형), 기타 (별명 호칭어, 호를 통한 호칭어)로 정리하였고, 박정운(2005)에서는 이름 호칭어 유형, 직함 호칭어 유형, 친족어 호칭어 유형, 대명사 호칭어유형, 통칭적 호칭어 유형, 기타 호칭어 유형(별명 호칭어, 호를 통한 호칭어, 지역명을 이용 호칭어, '여보세요'류 유형), 영형 호칭어, 친근 호칭으로 정리하였다. 또는 미얀마어 호칭어는 친족호칭어, 이름호칭어, 사회호칭어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한국과 미얀마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를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한. 미 친족 호칭을 형태론적으로 대조하여 정리하였고, 한. 미 형제자매 배우자 지칭 호칭어의 형태, 한. 미 친숙질/외숙질 지칭 호칭어의 형태, 한. 미 통칭형 호칭어, 친족 호칭어,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제 4 장에는 한국과 미얀마에서 사용 되는 친족 호칭어와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와 특징을 대조하여 정리하였다. 친족 호칭어는 친족 간에 서로 상대를 직접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며, 또한 상대친족원이 자기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족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친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기도 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친족 호칭을 각각 연구한 다음에 양국의 친족 호칭을 대조하였다. 사회적 호칭어에는 신분형 호칭어, 통칭형 호칭어, 대체형 호칭어, 생략형 호칭어 4 가지로 대조 연구 하였다. 신분형 호칭어는 대화 상대의 사회 신분을 통하여 서로 부르는 형식이다. 신분형 호칭어는 직장에서 일할 때 사용한다.

통칭형 호칭어는 청자에 대한 직업, 직함, 연령 등이 엄밀한 구분이 없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 형식이다. 사용범위가 넓고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은 통칭형 호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형 호칭어는 주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말을 걸려고 할 때 적절한 호칭을 찾기 어려운 때 사용함으로 정리하였다. 생략형 호칭어는 화자가 말을 일부러 걸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을 때 호칭어를 생략하는 상황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 호칭어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얀마의 대학교, 직장,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에 대해 대조하였고, 양국의 호칭어의 특징과 형태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호칭어의 분류를 소개하고 다른 학자의 논점을 참조하여 호칭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여러 학자의 논점에 따라 호칭어를 분류하고 유형별로 한. 미 호칭어 대조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미얀마어 한국 학습자와 한국어 미얀마 학습자가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여 그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화자들이 호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대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양국의 호칭어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호칭어 또한 다양한 상황별 용례에 대해 언급하고 실제 생활에서 호칭어 사용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필자의 능력 부족과 자료 수집이 엄밀하지 못했고 아직 많은 면에서 미흡하다. 앞으로도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러한 언어사용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본격적 관심과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사전류】

- 국립국어원(1999), 『표준어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희승(1961, 2015),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국립국어원편(2011), 『표준언어예절』 국립국어원.
KYAW YE HTET(2010), 『Study Of Myanmar Address Terms From Sociological Points Of View』, Myanmar Dictionary.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단행본】

-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의 운용실태와 방향』, 태학사.
남기심, 고영근(200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박정운(2005), “한국어 호칭어 체계”,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왕한석(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이무영(1994), 『예절 바른 우리말 호칭어』, 여강출판사.
이선웅·정희창(2002),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 태학사.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최재석(1991), 『한국의 친족용어』, 민언사.
한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2002.

허철구, 『우리말글 바로쓰기』, 동화서적, 2001.

한윤정(2003), ‘아줌마’, ‘아가씨’, ‘언니’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Braun, Friederike(1998), Terms of address: Problems of Patterns and Usage in Various Language and Cultures, Berlin: Mouton de Gruyter.

Daw Mar Lay(1977), 「Terms Of Address In Myanmar」

Fasold, R.(1990),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한국어판: 황적륜 외 공역(1994),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Khin Ei Ei Tin(2008), 「Gender Differences In Myanmar Language」

Wardhaugh, R.(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Blackwell

한국어판: 박의재 역(1994),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학위논문】

고영종(2006), “한국 현대 직장 사회의 호칭어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상천(2004),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민(1995), “회계와 호칭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설아문(2016), “사회적 상황에서의 한. 중 사회 호칭어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몬몬찌(2012),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연구: 친족 호칭어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기정(2000), “상행위에서의 호칭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선화(2002),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연경(2005), “한국어 교육에서 청자 대우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윤하(1995),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순자(2003), “현대 국어 호칭어 ‘님’과 ‘씨’와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항법(1992), 『국어친족 호칭어의 통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윤정(2003), 『‘아주마’, ‘아저씨’ ‘언니’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봉화(2013), “한.중 사회 호칭어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항보나영(1993), 『현대 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강영(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3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김은경(2006), “한국어와 영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한국어교육연구학회.

김희숙(2003), 『현대 한국어의 호칭어의 역설: 2차 사회 내 늘어나는 친족어 사용』, 『사회 언어학』, 제11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박갑수(1989), “국어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19호(겨울), 국어연구소.

박영순(1980), “국어와 영어에 있어서의 언어예절에 대한 비교연구 - 호칭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박정운(2005),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소세모돌(2005),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지칭에 대하여”, 『한말연구』16, 한말연구학회.

유송영(2001), “두 남녀 사이에 ‘친밀성’의 증가에 따른 호칭 . 지칭어의 교체 사용과 요인간의 우선 순위”, 한국사회언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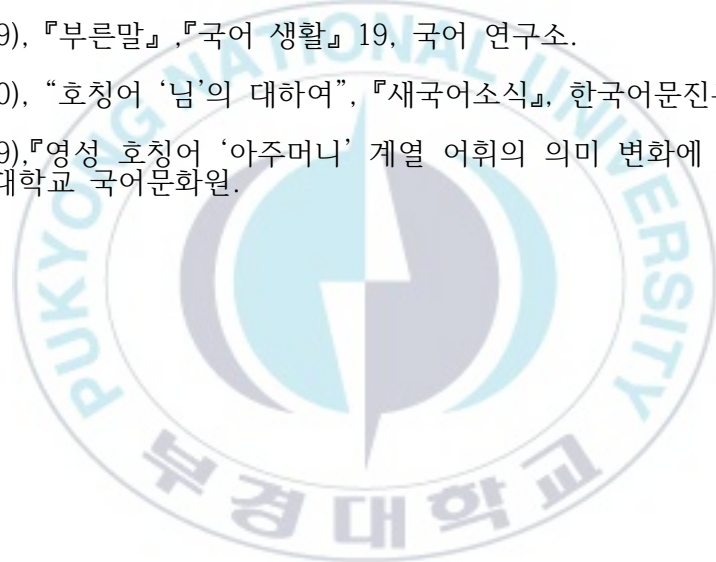
이정복(2000), “통신 영어로서의 호칭어‘님’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언어학회.

전혜영(1998),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호칭어 교육”, 『이승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한국문화사.

정재도(1989), 『부른말』, 『국어 생활』 19, 국어 연구소.

정희창(2000), “호칭어 ‘님’의 대하여”, 『새국어소식』, 한국어문진흥회.

조남민(1009),『영성 호칭어 ‘아주머니’ 계열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에 대한 대조 연구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호칭어를 여러 측면에서 대조하여 양국 호칭어의 특징과 형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연구 목적,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에 대해 논술하였다.

제 2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칭어의 개념을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미얀마의 호칭어를 대조하는 관점에서 양국의 호칭어 개념과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한국과 미얀마 호칭어의 형태론적인 대조를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한. 미 친족 호칭을 형태론적으로 대조하여 정리하였고, 한. 미 형제 자매 배우자 지칭 호칭어의 형태, 한. 미 친숙질/외숙질 지칭 호칭어의 형태, 한. 미 통칭형 호칭어, 친족 호칭어,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제 4 장에서는 한국과 미얀마에서 사용 되는 친족 호칭어, 사회적 호칭어의 형태와 특징을 대조하여 정리하였다.

친족 호칭어는 친족 간에 서로 상대를 직접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며, 또한 상대친족원이 자기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족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친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기도 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친족 호칭을 각각 연구한 다음에 양국의 친족 호칭을 대조하였다.

사회적 호칭어에는 신분형 호칭어, 통칭형 호칭어, 대체형 호칭어, 생략형 호칭어 4가지로 구분하여 대조 연구 하였다. 신분형 호칭어는 대화 상대의 사회 신분을 통하여 서로 부르는 형식이다. 신분형 호칭어는 직장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통칭형 호칭어는 청자에 대한 직업, 직함, 연령 등이 엄밀한 구분이 없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 형식이다.

사용범위가 넓고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은 통칭형 호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형 호칭어는 주로 낮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말을 걸려고 할 때 적절한 호칭을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함으로 정리하였다. 생략형 호칭어는 화자가 말을 일부러 걸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을 때 호칭어를 생략하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하였다. 또는 사회 호칭어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얀마의 대학교, 직장, 길거리, 가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에 대해 대조하였고, 양국의 호칭어의 특징과 형태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1 장부터 4 장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